

할랄인증 한우 등 아세안 지역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본격 추진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방문
- 장관 면담을 통해 식량안보, 스마트팜 등 미래지향적 농업협력 구체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1일(목)부터 16일(화)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과의 미래지향적 농업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장 행보를 추진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이며, 특히 올해는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이자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양국과 농식품 분야에서 진일보한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 농식품 및 관련 기업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두 국가를 방문하여 양국 장관, 현지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발전적인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 1980년대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 및 일본의 경제발전을 배우자는 기치로 추진한 정책

정황근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모하마드 사부(YB Datuk Seri Haji Mohamad Bin Sabu)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최초의 농업장관 공동선언을 교환하여 식량안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할랄식품 교류 등 농식품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그리고 할랄 한우 제1호 수출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KMT)와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aT)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케이-푸드(K-Food) 수출 영업사원’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샤를 야신 림포(Prof. Dr. Syahrul Yasin Limpo) 농업장관을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등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팜유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농식품 기업들과 현지 진출 법인들을 만나 구체적인 정책 지원 수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정황근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목재, 팜유 등 중요 원자재 수출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고,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한우, 과일, 김치 등 우리 농식품 수출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나라와 농업협력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케이-푸드(K-Food)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산물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용호 (044-203-2031)
		담당자	서기관	허정은 (044-203-2036)